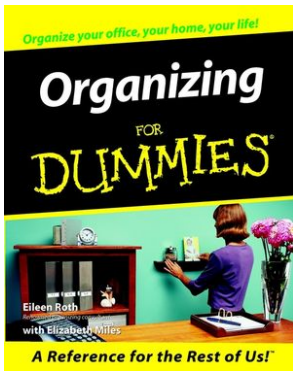


1. 성정창 회장 인사말

저희 학과에서는 3 월 1 일까지 Annual Report 라는 자화자찬 혹은 자아비판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합니다. 아마 모든 학교나 직장에서 비슷한 평가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2009 를 지내고 막상 지난 일들을 정리하려니 어려운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녘습니다. 화일들은 오피스와 집과 랩탑에 흩어져 있고, 논문 또한 여기저기 아무데나 흩어져있고, 사진들도 여기저기, 참석했었지만 심지어 이름도 생각이 안나는 학회도 있고 ... 일들을 벌리는 것도 중요한데,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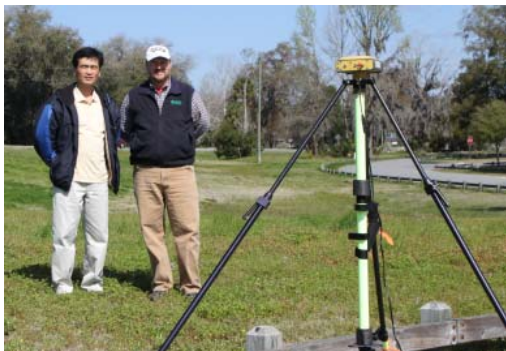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해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며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시는지요?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Barnes and Noble 에 들렀더니 Organizing for Dummies 가 있더군요. 제 꼭 필요한 책인것 같아서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교수생활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나지만 또한 어찌보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2009 년은 특히 teaching, project, research 등으로 제게 많이 바쁜 한해였습니다. 특히제가 주연구자로 최근에 받은 \$492,000 짜리 프로젝트는 여러가지로 미국의 사회를 구석구석 알수있게끔 해주며 저를 더욱 바쁘게 채찍질을 하고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KAGES 회원 및 이사님들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KAGES 가 명실공히 미국내 지리정보, 환경, 지리등을 망라하는 한인전문가들의



초대회장 성정창 배상

2. 중국 연변답사기 (김영현 부회장)

지난 여름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서 답사를 했다. National Geographic Society 에서 지원을 받아 중국 동포 사회의 최근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답사였다. 이백만 가량의 한민족이 중국 동북 삼성에 살고 있고, 그 중심이 연길이다. 1994 년 2 월에 서울대학교 이기석 교수님을 따라 열흘 가량 연길 주변을 둘러 봤었는데, ‘지난 15 년 사이에 나도 많이 변했지만, 이 도시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 도시의 특성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의 연길시 중심가는 서울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이 들만큼 여느 자본주의 도시와 별 차이가 없었다 (사진 1). 물론 중국 도시 사회 전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연길시의 경우는 “한국에서 온 돈’이 그 모든 변화의 주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 1992 년 한중수교가 되면서, 많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보내온 자본이 연길시 발전과 팽창의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사진 1 연길 중심가 시민광장



과거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 간 경우나 동유럽이나 구소련에 살던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돌아 간 경우처럼, 모국 (homeland)의 정부가 국경 넘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어스포라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ethnic right of return 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러 이유로 중국동포를 이주 노동자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일본, 헝가리, 터키도 한국과 비슷한 예에 속한다. 사실 트랜실베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헝가리 사람들은 연변의 조선족과 좋은 비교 연구가 된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이 살고 있던 변방 사람들에게 국경이 그어지고, 국적이 주어지면서 중앙 정부와 소위 주류 사회는 이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게 되고, 정체성과 소속을 묻게된 경우이다. 중국 동포사회는 한반도에서

강제 이주된 농민 집단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중국 공민으로, 북한과 접한 곳에 위치한 과경민족으로, 그리고 최근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 비교적 부유한 소수민족으로 변해 오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끊임 없이 받아 왔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 온 것 같다. 연길시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인터뷰 하면서, 내가 이전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복잡하고 어려운 개인의, 동포 사회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전해 들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삶도 있었구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주 정책에 대한 분석이나 설문 조사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귀한 삶의 이야기를 왕청, 영안, 용정등지에서 존 어른들로 부터 들었다. 연길시에서는 동포 작가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지식인들이 바라보는 조국과 고국, 역사와 사람을 얘기했다. 감히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자란 나 자신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있는 까닭인지, 인터뷰 도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여럿 있었다.

사진 2 연길 시내 북한식당 내의 한국 관광객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동포의 앞날에 대해서 내 생각을 물었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 해 줬다. 내 연구는 앞날이 어떨지, 어때야 하는지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난 날과 오늘, 앞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구 뭐하러 하나’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래 사진 2는 북한 정부에서 운영한다는 연길 중심가에 위치한 한 식당의 내부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가득했고, 그들이 아니면 그 식당은 문을 진작에 닫았을 것이라 했다. 그 관광객들 중에는 보수도 있을 것이고 진보도 있을 것이고, 또 민족 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다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연변이 만나는 횡수가 늘어나고, 그 장이 확대된다는 사실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점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 같다. 앞으로 연길을 최소한 몇번은 더 가야 할 것 같다.

## 회원동정

### 김창주 회원 (신신내티대학 지리학과)

- Dr. Kim attended the meeting of the 2010 Association of Japanese Geographers. During the visit, he has visited various geography programs including University of Tokyo and University of Tsukubar. He has also obtained the recent information about East Sea and Dokdo from Japanese academic research perspectives.



### 박선엽 회원 (경일대학교 위성정보공학과)

- 지난 2009년 여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경일대학교 위성정보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 9호관 217호  
Email: [spark@kiu.ac.kr](mailto:spark@kiu.ac.kr)

### 반효원 회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 아래의 논문을 최근 출간  
Ahlqvist, O., Ban, H., Cressie, N., and Zuniga-Shaw, N. (2010). Statistical counterpoint: Knowledge discovery of choreographic information using spatio-temporal analysis and visualization. Applied Geography, doi:10.1016/j.apgeog.2010.03.006.  
Ban, H. and Ahlqvist, O. (2010). User evaluation of a software interface for geovisualization and communication of uncertain urban ontologi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onstruction (ITcon), 15, 122-131, <http://www.itcon.org/2010/9>.

**장희준 회원 (포트랜드주립대 지리학과)**

- Journal of Hydrology 의 Excellent reviewer 로 선정됨
- Hydrological Processes articl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on the runoff of the Rock Creek in the Portland metropolitan area, OR, USA 이 Editor's choice of top ten article 로 선정됨.
- 미국 오래건주 기후영향평가 보고서 수자원 부분 주저자로 활동중.
- 2010 년 5 월 UNESCO - HELP workshop 호스트로 활동중,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a changing environment, Portland, OR May 10-12, 2010.

- Praskievicz, S. and Chang, H.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urban development on water resources in the Tualatin River basin, Oreg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in press)

Chang, H. Lafrenz, M. Jung, I-W., Figliozzi, M., Platman, D. and Pederson, C. Potential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flood-induced travel disruption: A case study of Portland in Oregon, US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in press)

**정진규 회원 (위스콘신 대학 - Bothell)**

- SUNY Buffalo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University of Washington-Bothell 조교수로 부임. 주소는 아래와 같음
- University of Washington-Bothell Geographic Analysis & Visualization Interdisciplinary Arts & Science
- 부인 오건화도 같은 학교에서 학위를 마쳤음. (PhD, Feb. 2010), Dept. of Geography, SUNY-Buffalo
- 2010 년 3 월말에 둘째 딸 정다인이 태어남.

**최운섭 회원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In November 2009, Dr. Choi presented a paper at the 2009 AWRA Annual Water Resources Conference in Seattle, Washington, entitled "Climate change impacts on water resources in northwestern Ontario, Canada: Uncertainty from downscaling methods." It was co-authored by S.J. Kim, M. Lee, K. Koenig, P. Rasmussen and A. Moore, all of whom are or used to be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He also presented a poster at the same conference entitled "Comparison of reanalysis datasets with observed meteorological data in the Canadian Prairies region" and co-authored by S.J. Kim and P. Rasmussen. In the same month, Dr. Choi participated as a discussant in the

Korea Day Symposium "Korean Maps of the 19<sup>th</sup> Century: The Korean National Treasure *Dadongyeojido*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which was held at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Library and sponsored by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

- Dr. Choi was awarded \$2,653 for Faculty/Academic Staff Travel Awards to Develop/Implement Overseas Field Research Experiences for Undergraduates from the UWM Center for International Education. He will travel to Korea in late May using the fund to develop a research program about the effects of macro-scale urban development on flood risks.

**최종남 회원 (서일리노이대 지리학과)**

- 2009 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년을 보냄.
- 2009 년: Salem Press 가 발간한 "Encyclopedia of Global Warming"에 "Fog", "South Korea", 그리고 "North Korea"의 주제어로 참여
- 아래의 논문을 출간
  - Jongnam Choi, 2009, Seasonality and Criminal Incidents on and off Campus, The Journal of humanities,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Korea, Vol. 16, pp.69-93.
  - S. Yim and J. Choi, 2009, Farmers' Perception of Wetlands and Their Attitude on Government Wetlands Policies: A Study of Four Illinois Coun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44, pp.624-633.
- 2009 년 11 월 23-23 일에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열린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rritorial Geography Education 의 Co-Organizer 로 활동
- 2010 년 4 월 16 일(금)에 개최된 제 2 차 Dokdo/East Sea Workshop 을 Organizer 로 활동

**최진무 회원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로 부임

**회원가입안내**  
 학회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후원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회원은 투표권과 함께 다양한 학회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안내서는 학회 웹사이트인 <http://www.kages.org>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후 [support@kages.org](mailto:support@kages.org)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